

배포일시	2021. 1. 4.(월) 18:00 (총 6매)	보도시점	즉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유용규 전문관 박찬귀
		전화번호	042-363-3527

## 북극발 한파 영향, 이번 주 강추위 이어져

- 이번 주 내내 영하 10℃ 이하 강추위,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
  - 7~9일 영하 20℃ 내외로 떨어지는 등 이번 한파 고비
  - 계량기·수도관 동파, 정전 등 시설물 피해와 한랭 질환에 대비 필요
- 이번 주(6~8일) 대전·세종·충남 곳곳에 잦은 눈
  - 6일 오후~7일 오전 다소 많은 눈
  - 6~8일 충남서해안중심 최대 20cm 이상 많은 눈 주의



[ 1월 5일 오후 예상 날씨 모식도 ]

- 대전지방기상청(청장 박훈)은 이번 주(5(화)~10(일)) 동안 북쪽으로부터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대전·세종·충남에 강추위가 지속되겠고, 7일(목)~9일(토) 기간이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. 또한, 대전·세종·충남 곳곳에 눈이 자주 내리고,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어 기록적인 강추위와 많은 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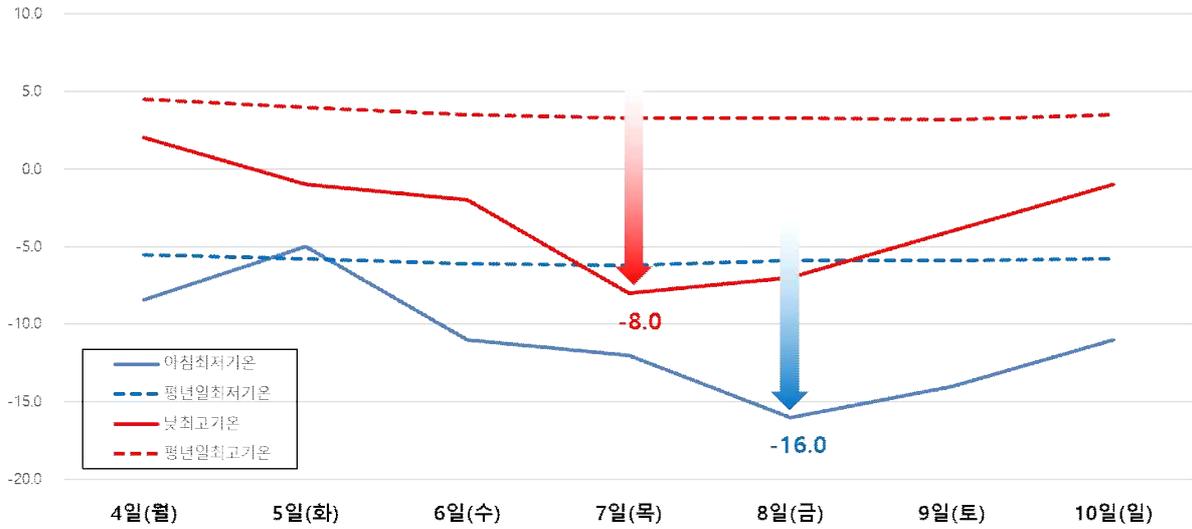
## [ 기압계 전망 ]

- 최근 동아시아~베링해 부근의 기압계 이동이 매우 느려진 가운데, 시베리아 부근의 차가운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빠르게 남하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대기 상층(고도 5km 이상)에서는 우리나라 북동쪽에 자리 잡은
  - ①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정체·회전하면서 영하 50℃ 안팎의 강한 한기를 남쪽으로 이동시키고,
- 대기 하층(고도 1.5km 이하)에서는 대륙고기압(우리나라 북서쪽)과 저기압(우리나라 북동쪽) 사이에 만들어진 통로를 따라
  - ② 북쪽의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함에 따라
- 대기 상·하층의 매우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들며 주말까지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, 대전·세종·충남지역 곳곳에 눈이 자주 내리겠으며 특히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.

## [ 추위 전망 ]

- 찬 공기가 점차 유입됨에 따라 5일 밤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져 6일(수)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℃ 이하로 떨어지겠고, 7일부터는 낮 기온도 영하 7℃ 이하로 떨어져 당분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- 특히 8일(금) 아침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20℃ 내외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등, 이번 주 한파의 가장 큰 고비가 되겠고, 주말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5℃ 안팎에 머무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았다.
- 또한, 7~9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하는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0℃ 이상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랭 질환 예방 등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
-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, 13일(수)경 평년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, 그 이후에도 추운 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, 앞으로 발표되는 기온예보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였다.

이번 주 예상기온 경향(°C, 대전기준)



- 대전지방기상청은 “주말까지 영하 10°C 이하의 매서운 한파가 영향을 주는 만큼 선별진료소 등 야외업무 종사자와 노약자는 한랭 질환에 각별한 유의와 계량기·수도관 동파, 보일러 파손 등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고, 겨울철 농작물의 냉해와 양식장 한파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”고 당부하였다.

## [ 강수 전망 ]

- 6일 오후, 북쪽으로부터 이전보다 더욱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6일 저녁~7일 오전 대전·세종·충남 대부분 지역에 최대 10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, 8일까지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하였다.
- 6일 오후 충남북부서해안에 시작된 눈은 밤에 서쪽지역으로 확대 되겠고, 7일 새벽에는 대전·세종·충남 대부분 지방에 눈이 내리는 만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당부하였다.
- 또한, 6일 오후~8일 오전에는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 지면서 최대 2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쌓여 대설특보가 발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.
- 그러나, 6~8일까지 예상되는 눈은 아직 기간이 멀기 때문에 구체적인 강수시간, 지역, 그리고 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, 예보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.

## [ 강풍과 풍랑 전망 ]

- (강풍) 6일 밤 충남서해안에는 매우 강한 바람(최대순간풍속 초속 20m, 시속 70km 이상)이 불면서,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.

  - 그 밖의 내륙에서도 강한 바람(최대순간풍속 초속 10m, 시속 35km 이상)이 불 것으로 예상되어 8일까지 강한 바람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.

- (파도) 6일 오후 서해상에 바람이 점차 강해져 7일 서해중부 해상에서 물결이 2~4m로 일겠고, 특히 서해먼바다에서는 최고 5m 이상 높게 일어 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.

  - 특히, 물결이 높은 가운데 눈구름대가 발달하여 가시거리도 좋지 않은 만큼 해상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전하였다.